박효진

공존하는 디자이너 박효진입니다. 디자인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에 디자이너는 자신이 초래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겨 환경을 파괴하는 디자인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공존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I'm Park Hyojin, a co-existing designer. Design ha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so designer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irection of change they have caused. I want to design for the coexistence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not the design that encourages unnecessary consumption and destroys the environment.

[lisa90316@naver.com](mailto:lisa90316@naver.com)

<https://www.behance.net/lisa903168da0>

@hyoarchive2022